

# Deloitte Insights

July 2025



## 데이터와 기술로 진화하는 세무 전략

디지털 전환과 규제 변화 속 세무 기술과  
데이터 역량의 전략적 중요성

Deloitte Global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 목차

데이터와 규제가 이끄는 세무 혁신 .....	03
<b>01. 글로벌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 최적화 .....</b>	<b>05</b>
<b>02. 기술 투자 전략의 결정 .....</b>	<b>07</b>
<b>03. 조직 내 협업과 예산 확보 .....</b>	<b>08</b>
<b>04. 최적의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 수립 .....</b>	<b>11</b>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	12
조사 개요 .....	13

# 데이터와 규제가 이끄는 세무 혁신

복잡해지는 세무 의무, 실시간 보고 요구, 세무 투명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며 목적에 부합하는 세무 데이터를 즉시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은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 이하 '필라2'), EU의 전자결제정보시스템(CESOP) 및 디지털 시대의 부가세 규정(ViDA), 전자보고(e-reporting) 등 최근 규제 변화로 기업의 준법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무 전략과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 데이터를 식별·가공·관리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이 기업의 핵심 대응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필라2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부담을 정량화하고, 유효세율(ETR)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중입니다. 필라2의 준수를 위해서는 복잡한 규제 요건을 반영할 시스템 정비도 필수입니다.”

**젬마 벡(Gemma Beck)**

헤일리온(Haleon Plc) 세무 총괄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버전 관리, 수기 데이터 수집, 적절한 형식과 수준의 데이터 확보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정확한 보고와 인사이트 도출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는 딜로이트의 「2023 세무 혁신 트렌드 조사」에서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꼽혔다. 이러한 규제 및 디지털화의 영향은 기업의 규모, 지역, 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업무 부담은 커지고, 세무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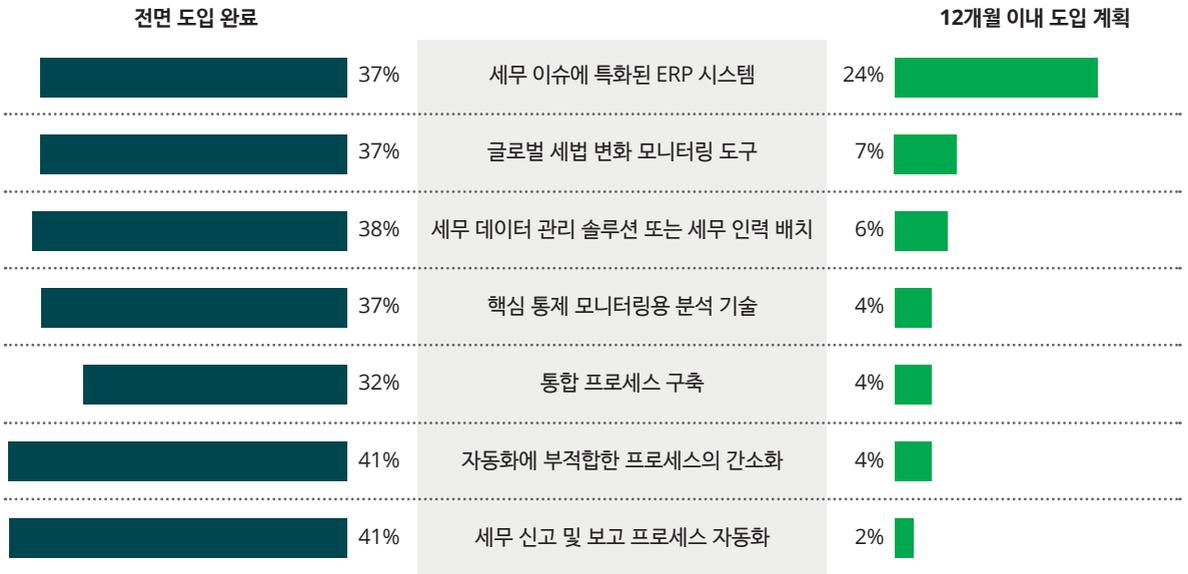
또한, 많은 세무당국이 세금 관련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수집·공유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세무 데이터에 대한 직접 접근권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흐름으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자동화된 세무 모델과 적시에, 적절한 형식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량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 입력, 검증, 정제 과정을 자동화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세무당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이 모든 변화는 기업들이 생성형AI의 역할과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 맞물려 있다. 기업은 AI 기술의 신뢰성과 개인 정보보호 관련 리스크, 그리고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투자 및 도입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기술은 조직 전반의 세무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 전략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세무 부서는 단순한 업무 처리와 비용 관리에서 벗어나 분석을 기반으로 한 성과 중심의 인사이트 창출로 기능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딜로이트가 300명의 세무·재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무 전환 전략의 이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4%만이 향후 12개월 내 세무 이슈에 특화된 전사적 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그림 1). 또한 전 세계 세법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를 세무 부서에 완전히 도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에 그쳤다. 또한, 세무 데이터 관리 솔루션 도입이나 데이터 조직 내 세무 인력 배치(38%), 통합 프로세스 구축(32%) 등 데이터 관리 및 기술 활용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그림 1. 세무 전환 전략 이행 현황



출처: 딜로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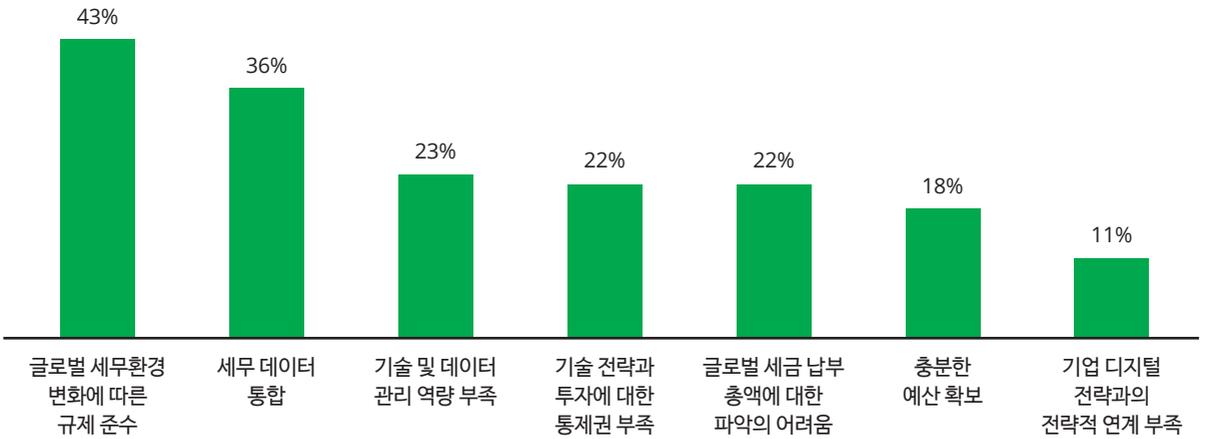
세무 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존 ERP 시스템을 세무 목적에 맞게 최적화하려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내부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며,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01. 글로벌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 최적화

세무 부서에게 규제 준수는 최우선 과제다(그림 2). 이와 더불어, 필라2에 대응하며, 글로벌 세무담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반에 걸쳐 통합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세무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여전히 전사 차원의 세무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딜로이트의 「2023 세무 혁신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가 '세무 데이터 통합'을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두 번째로 꼽았다. 또한, 23%는 기술 및 데이터 관리 역량 부족, 22%는 글로벌 세금 납부 총액에 대한 파악의 어려움, 또 다른 22%는 기술 전략과 투자에 대한 통제권 부족을 주요 도전 과제로 지적했다(그림 2). 이처럼 규제 준수는 기술 역량, 데이터 인프라, 전략적 거버넌스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힌 문제로, 기업이 직면한 전방위 리스크이자 '퍼펙트 스톰'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2. 향후 3~5년간 세무 부서가 직면할 주요 과제



출처: 딜로이트



“OECD뿐 아니라 각국 세무당국으로부터 규제 준수 요건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동화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죠.”

**릴리아네 사이아니(Liliane Saiani)**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세무 총괄

기업들이 ERP 시스템을 세무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맞춤화하려는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세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능과 정보를 시스템에 반영하면, 규제 준수는 물론, 관련된 벌금과 비용 부담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적 ERP 시스템은 법인 단위에서 세무팀이 요구하는 정확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경영 보고 기능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ERP가 세무 분석 기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다양한 국가의 세법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정교하고 전략적인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세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와 기술 역량을 구축해 왔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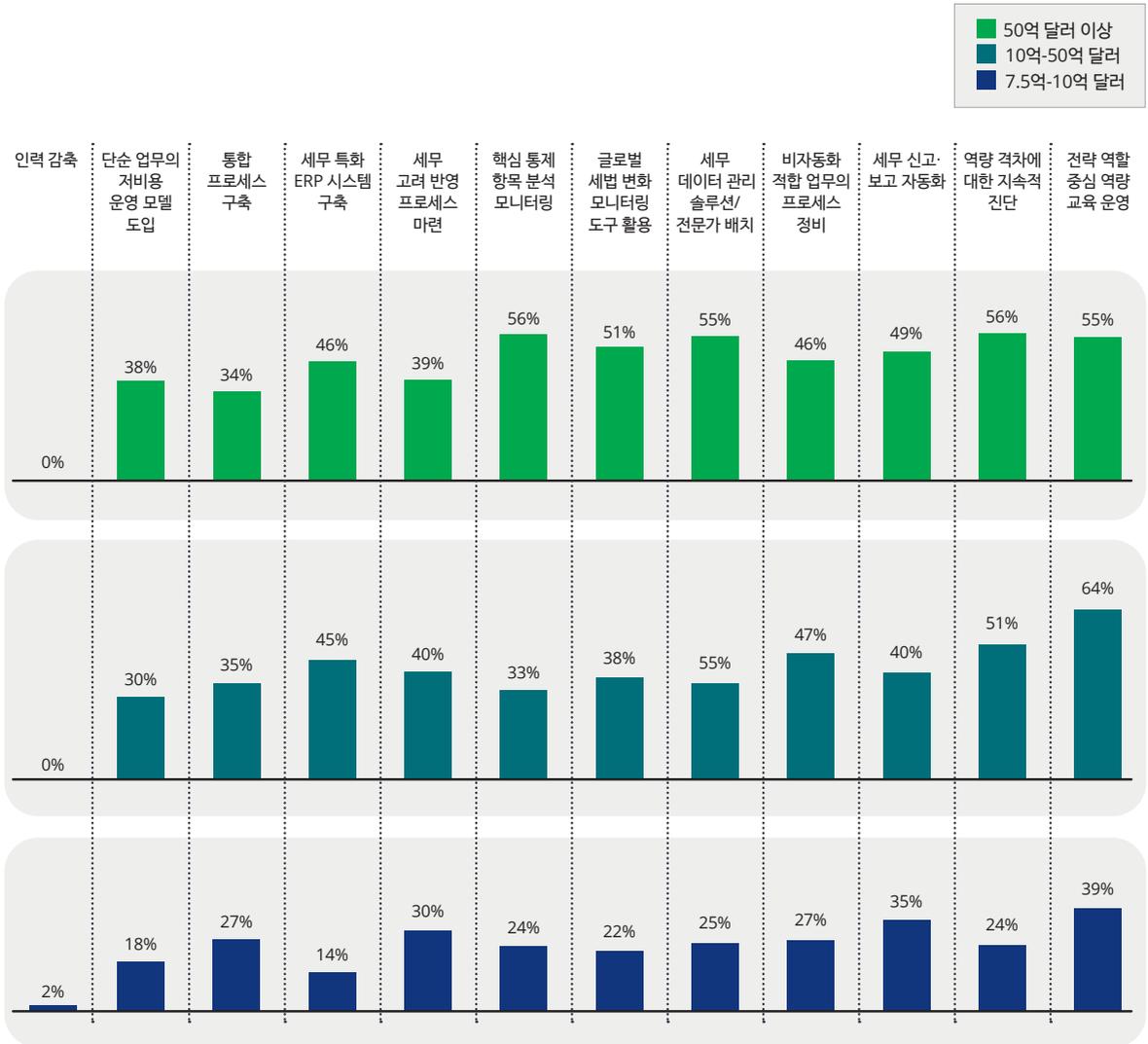


“우리는 먼저 내부 효율성 제고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ERP 환경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지만, 다양한 기술 구성 요소를 정리하고 통합하는 일은 항상 도전 과제입니다.”

**크리스티 도일(Kristi Doyle),**  
존슨컨트롤즈(Johnson Controls) 글로벌 세무 이사

이러한 과제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연매출 50억 달러 이상 기업의 55%는 세무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전면 도입했거나, 세무 전문가를 데이터 관리 조직에 포함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매출이 10억~50억 달러인 기업은 35%, 7.5억~10억 달러인 기업은 25%에 그쳤다(그림 3).

그림 3. 향후 3~5년간 세무 부서가 직면할 주요 과제



출처: 딜로이트

## 02. 기술 투자 전략의 결정

디지털 전환은 이제 대부분의 기업에서 핵심 아젠다로 자리 잡았지만, 기술 투자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 수익성을 명확히 평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어떤 조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투자가 기업 가치 향상에 직결되는지를 판단하는 데도 많은 고민이 따른다. 특히 생성형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기업은 대규모 기술 투자를 언제, 어떤 규모로 실행할지 결정하는 데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기술을 직접 개발·도입·유지보수·교체하는 데 필요한 투자와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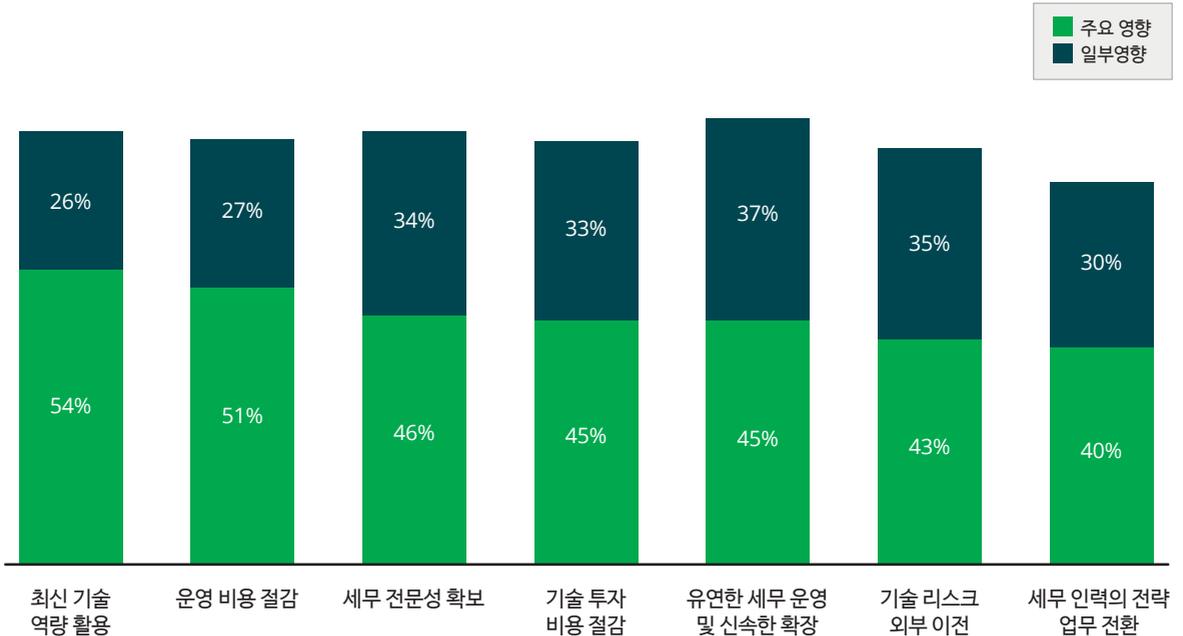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가능한 많은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을 내부에서 개발할 만큼의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필립 드 루즈(Philippe de Roose)**

래디슨 호스피탈리티 그룹(Radisson Hospitality Group) 세무·재무 관리 담당 수석 부사장

그림 4. 세무 업무 아웃소싱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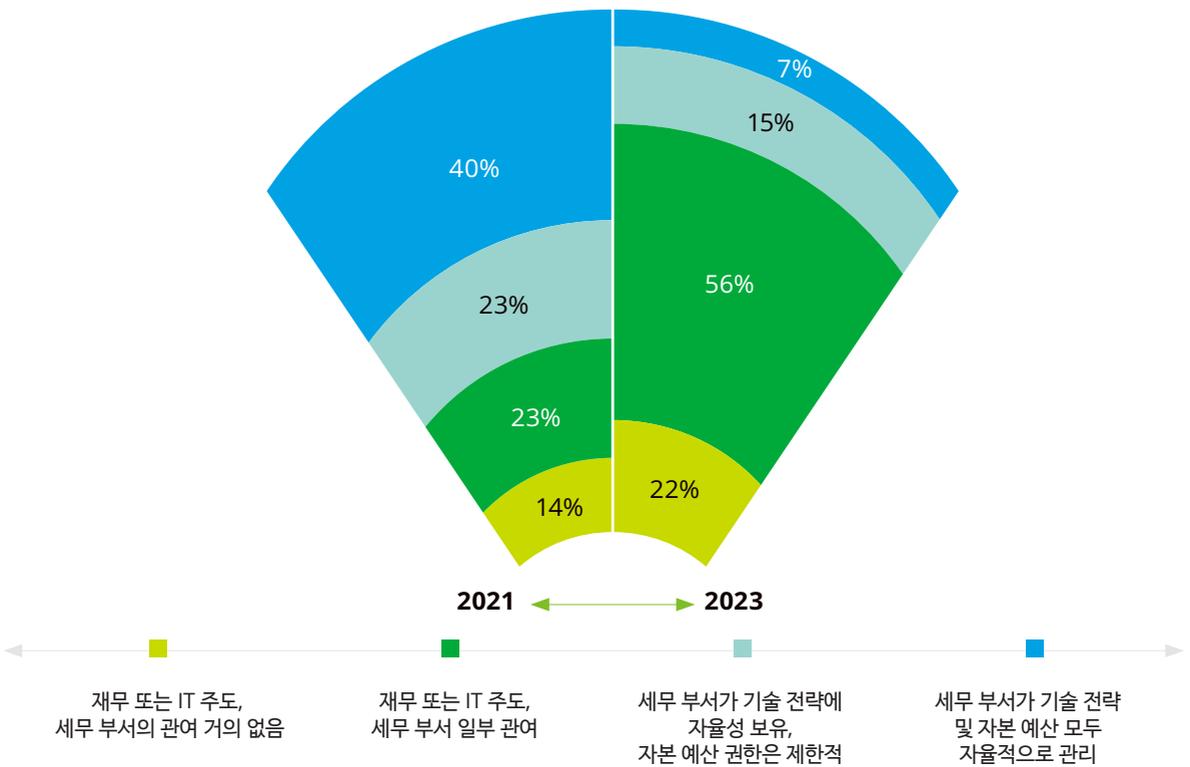


출처: 딜로이트

### 03. 조직 내 협업과 예산 확보

데이터 관리와 IT 시스템의 활용은 세무 부서에 있어 점점 더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하지만 딜로이트의 「2023 세무 혁신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는 기술 전략과 기획이 주로 재무 또는 IT 부서의 통제 하에 있다고 응답했다. 세무 부서가 이 과정에 일부 관여한다고 답한 비율은 56%였으며, 22%는 거의 관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그림 5). 이는 2021년 조사 결과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당시에는 세무 부서가 기술 전략과 예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변화는 ERP 기반의 시스템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세무 부서의 독자 솔루션보다는 ERP 기반 통합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서, 조직 내 다양한 부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해야 할 필요도 커졌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기술 전략과 예산 집행에 있어 IT와 재무 부서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그림 5. 기술 전략 및 기획 과정에서 세무 부서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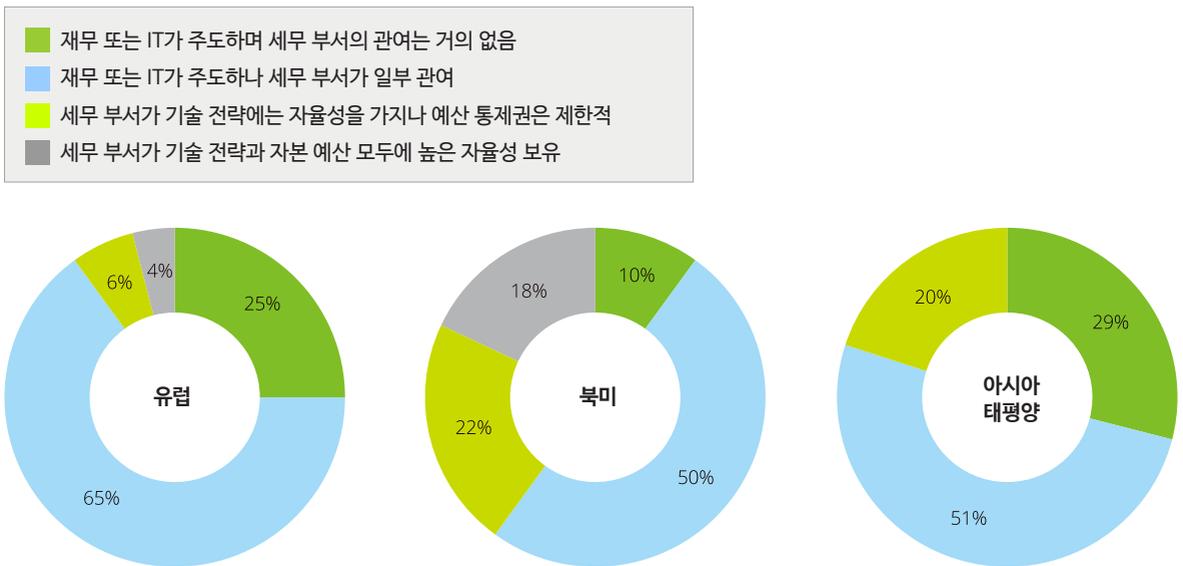


출처: 딜로이트

지역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북미 기업의 응답자 중 40%는 세무 부서가 기술 전략 또는 기술 전략과 예산 모두에 대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다고 응답한 반면, 유럽은 10%,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에 그쳤다(그림 6).

이러한 차이는 과세 구조와 ERP 시스템 운영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유럽과 아시아 기업은 일반적으로 간접세 비중이 높고, ERP 시스템에서 공급망 관리와 복잡한 통합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술 전략은 주로 재무 부서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소득세 중심의 과세 체계를 갖춘 북미 기업에서는 세무 부서가 기술 전략 수립과 시스템 운영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아시아 기업은 전통적으로 여러 관할 지역의 보고와 규제를 분산형 방식으로 관리해 왔으며, 하나의 ERP 플랫폼으로 모든 지역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도 세무 기술 역량이 빠르게 강화되면서, 공통 ERP 플랫폼 기반의 운영과 지역 맞춤형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그림 6. 지역별 세무 부서의 기술 전략 및 기획 참여 수준



출처: 딜로이트

기술은 오늘날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세무 운영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중심 전환의 중요성은 응답자 인터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최근 필라2와 전자보고처럼 최근 규제 준수 요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제는 모두 기술과 디지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죠.”

**헤수스 브라보 페르난데스(Jesus Bravo Fernandez)**  
카콜라 유로퍼시픽 파트너스(Coca-Cola Europacific Partners)  
간접세-이전가격-세무 기술 총괄

많은 응답자들은 단일화된 통합 세무 플랫폼 구축을 향후 몇 년간의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는 운영 효율성 제고와 더 나은 데이터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의 일환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분산된 기술 환경을 정비하고 통합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현재 다양한 시스템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 안에서 구조와 일관성, 가시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술 측면에서 어떤 변화와 트렌드가 나타나는지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죠.”

**더크 티머만스(Dirk Timmermans)**  
존슨컨트롤즈 글로벌 회계 및 세무 운영 부사장

세무 부서가 기술 투자 예산을 확보하려면, 자신들이 기업에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보호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특히 전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세무 당국의 디지털화가 경영진(C-suite)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며, IT 부서와 긴밀하게 협업한 기업일수록 예산 확보와 전략적 성과 달성에 성공하는 사례가 많았다.

OECD의 「조세행정 3.0(Tax Administration 3.0)」 보고서에서도 강조되듯, 세무 당국과 기업 시스템 간 실시간 연결을 통한 규제 준수 실현은 ERP 시스템 설계에 있어 핵심 고려사항이다. ERP는 대부분의 거래가 발생하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요건만을 충족하는 ‘포인트 솔루션’에 머무르기보다는 향후 5~10년간 예상되는 규제와 비즈니스 요구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기술 전략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 부서가 기업의 전략적 조력자로 기능하기 위한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별 세법과 규제가 여전히 상이하고 빈번히 변경되는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과 요구사항을 사전에 식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 04. 최적의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 수립

세무 부서는 종종 즉각적인 기술 수요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모범 사례에 따르면, 우선 기존에 확보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로드맵을 수립한 후, 향후 필요 기술을 예측해 내재화(build) 또는 외부 도입(buy) 여부를 결정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는 세무 부서의 전체 운영 모델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 모든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업무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세무 인력이 보다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술 도입이 결정된 이후에는 이를 내부 인력으로 구현할지, 외부 구현 파트너를 선정할지, 또는 해당 기능 전체를 아웃소싱할지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내부 인력을 활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세무 부서는 데이터 관리 및 기술 역량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문 인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은 딜로이트의 「2023 세무 혁신 트렌드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향후 3~5년간 세무 부서에 가장 필요한 역량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4%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 기반 전략 인사이트 도출, 데이터 관리를 꼽았다. 이는 세무 부서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할이 강화되고, 정부가 기업의 세무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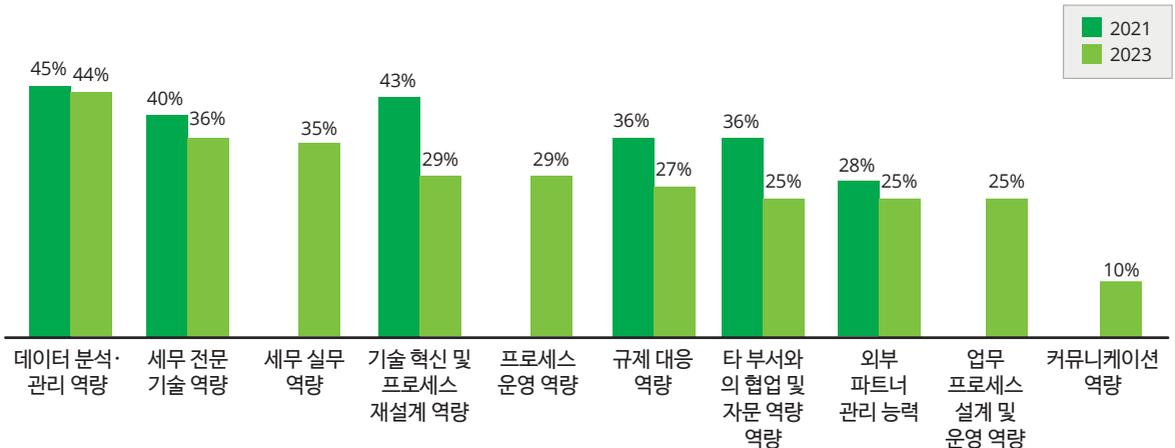


“우리는 수년 전부터 세무 부서 내에 IT 전문 인력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왔습니다. 이러한 결정 덕분에 세무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더크 티머만스(Dirk Timmermans)**  
존슨콘트롤즈 글로벌 회계 및 세무 운영 부사장

일부 기술 역량 수요는 2021년보다 2023년에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부 기업들이 채용 확대나 외부 서비스 활용을 통해 해당 분야의 인력 수요를 일정 부분 해소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기술 전환 및 프로세스 재설계'를 중요한 인재 확보 분야로 꼽은 응답자는 2021년에는 43%였으나 2023년에는 29%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는 향후 1~2년간 필요한 역량 중 네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기술 인재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7).

그림 7. 향후 1~2년간 세무 부서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2021 vs. 2023



참고: 복수 응답으로 각 항목의 합이 100% 초과할 수 있음. 일부 항목은 2023년 조사에만 포함  
출처: 딜로이트

#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전 세계적인 세제 개편과 함께 이사회, 재무 부서, 금융기관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 관리 역량을 세무 기능의 핵심 과제로 인식함에 따라, 세무 리더들에게는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무 기술 환경은 ERP나 단순한 세무 데이터 식별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울 만큼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세무 조직은 현재 보유한 기술이 실제 니즈에 부합하는지, 시스템간 연계가 충분한지,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존 시스템이 조기에 무용화될 위험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특히 생성형AI의 빠른 발전은 '언제', '어떤 규모로' 기술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기업에 새로운 고민을 던지고 있다. 현재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각 비즈니스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성형AI는 보다 광범위한 AI 및 데이터 분석 기술과 결합되어 세무 기술 영역의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술의 활용도 확대, 기능 고도화, 무엇보다 배포 비용의 하락에 기반한다. 이처럼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명확한 기술 전략과 견고한 데이터 구조 설계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림 8. 세무 부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 로드맵

1단계	데이터 기반 구조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 데이터의 통합성·정확성 확보</li> <li>ERP 기반 인프라 점검 및 연계 구조 확립</li> </ul>
2단계	기술 전략 수립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성형 AI·분석 기술의 도입 시점 및 범위 판단</li> <li>단기 대응이 아닌 중장기 기술 로드맵 설계</li> </ul>
3단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IT 부서와 협업을 통한 기술 연계</li> <li>세무 부서의 전략적 영향력 강화</li> </ul>
4단계	세무 기능의 일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 프로세스에 세무 고려 내재화</li> <li>투자 판단·전사 전략에 세무가 기여</li> </ul>

실제로 많은 세무 책임자들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무 조직 내에 새로운 기술 역량을 도입하며 변화에 나서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이나, 아직은 긴 여정의 출발점일 뿐이다. 앞으로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세무 데이터를 전략적 인사이트의 기반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무의 역할이 확장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동적 대시보드와 시뮬레이션 모델링 등의 고도화된 분석 도구가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딜로이트의 「2023 세무 혁신 트렌드 조사」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확인된다. 세무 부서에는 규제 준수 과정에서 도출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 다른 부서와의 유연한 협업, 그리고 기능 및 지역을 아우르는 기술 통합 역량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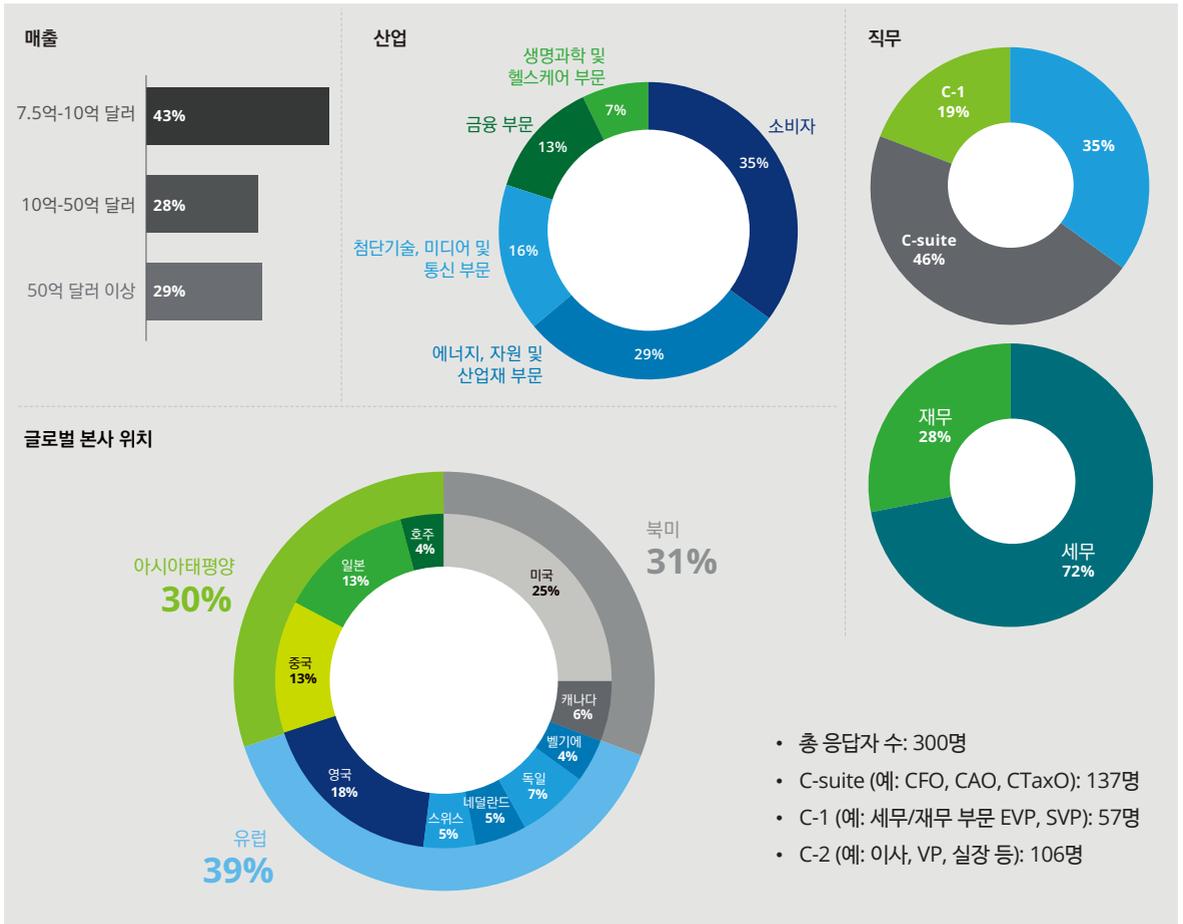
AI 기술 도입을 계기로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세무 부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세무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 디지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 전략은 전사 차원의 디지털 전환 방향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구성원과 프로세스가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딜로이트 조사에 참여한 세무 리더들은 세무 기능을 일상적인 운영 프로세스에 자연스럽게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세무 고려사항이 조직 전반의 전환 전략 속에 '비즈니스의 일상'으로 자리 잡을 때, 기술 투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마련되며, 세무 부서의 전략적 가치 역시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 조사 개요

딜로이트의 「2023 세무 혁신 트렌드 조사」는 세무 및 재무 임원들을 대상으로 세무 운영, 아웃소싱, 기술, 인재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다양한 산업, 기업 규모, 지역을 대표하는 300명의 세무 및 재무 부문 고위 리더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세무 기능의 비전과 그 실현을 위한 계획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대형 다국적 기업의 세무 책임자들과의 개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세무 전환 활동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정성적 인사이트도 도출하였다.

그림 9. 응답자 통계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 세무자문부문(Tax & Legal)

세무자문부문은 국내·외 조세 규정과 국제 조세 이슈 등을 분석하고 딜로이트 글로벌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이 세무 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세무자문부문은 기업 세무, 국내·외 투자 자문, 기업 인수·합병 자문, 이전가격자문, 회계 및 세무 아웃소싱, 해외파견 임직원 세무 및 과세자문 등의 다양한 세무 분야에서 차별화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현모 파트너

딜로이트 Tax Technology Consulting

☎ 02 6676 3015

@ hygoo@deloitte.com



### 이용찬 파트너

딜로이트 이전가격 자문 그룹

☎ 02 6676 2828

@ yongclee@deloitte.com



### 이신호 파트너

딜로이트 국제 조세 자문 그룹

☎ 02 6676 2375

@ shinlee@deloitte.com



### 최승웅 파트너

딜로이트 기업 세무자문 그룹

☎ 02 6676 2517

@ seungchoi@deloitte.com



### 임홍남 파트너

딜로이트 기업 세무자문 그룹

☎ 02 6676 2336

@ honglim@deloitte.com



### 서민수 파트너

딜로이트 해외 파견 임직원 세무자문 그룹

☎ 02 6676 2590

@ mseo@deloitte.com



앱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

# Deloitte.

## Insights

###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 연구원

김혜련 Senior Manager  
hyerykim@deloitte.com

###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